

새로 나온 책

▶오늘의 기후(노광준 지음)='특별 실종사건'에서부터 '탈원전 논란'까지 무심코 지나친 기후 뉴스들을 다시 살피면서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세하게 조명한다. 또 여러 분야에서 작지만 소중한 실천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오늘의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해법을 모색한다. 루아크. 1만5500원.



▶스몰원(신동선 지음)='한 번에 하나씩, 작은 성공을 쌓아 원하는 능력을 얻게 해주는 뇌과학적 연습 설계법'을 제안한다. 뇌신경과 전문의이자 뇌신경의학자인 저자는 뇌과학에 기반해 뇌가 즉각 반응하는 연습법이 따로 있다고 강조한다. 해나무. 1만6500원.



▶왜 내 사업만 어려울까?(유주현 지음)='사업의 쓰디쓴 실패를, 그것도 몇 번 경험하며 다시 일어선 저자가 자신만의 노하우를 모두 담아냈다. 특유의 거침없는 화법으로 불편한 진실을 열거하지만 그 속엔 사람을 대하는 데 필요한 진솔하고 핵심적인 조언 또한 함께한다. 유아이북스. 1만7000원.



▶양심이 잠든 순간들1, 2(문장수 지음)='간달 두복 출신이 직접 쓴 자전소설. 글이러곤 써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글쓰기를 배운 적도 없는 작가가 처음으로 감방에서부터 한 자 한 자씩 손으로 눌러쓰기 시작한 30여 년 만에 완성한 원고지 2000매 분량의 장편소설. 모아북스. 각 2만5000원.



▶로스트 웨일(하나 골드 지음, 레비 핀폴드 그림, 박다솜 옮김)='장편 동화 '라스트 베어'로 데뷔하자마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하나 골드의 두 번째 동화. 드넓은 태평양을 무대로 소년과 고래가 나누는 신비하고 특별한 우정, 그리고 고래를 찾기 위한 긴장감 넘치는 모험을 담고 있다. 창비. 1만4000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은행(온잘리 Q. 라우프 지음, 엘리사 파가넬리 그림, 윤경선 옮김)='축구를 좋아하는 소년 뱀슨을 주인공으로 해서 결식아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아빠가 새 가족을 찾아 떠난 뒤, 뱀슨네 가족은 푸드뱅크의 도움을 받아 생계를 꾸려 가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푸드뱅크의 음식이 자꾸만 줄어든다. 라임. 1만1000원. 조상윤기자



깨진 일상의 조각 엮어가는 고군분투

에즈메이 웨이준 왕의 '조울하는 나날들'

삶 혼든 조현병에 맞선 어느 소설가의 기록

책 '조울하는 나날들' (북트리거 펴냄)은 조현병에 맞서 마음의 현을 맞추는 어느 소설가의 기록이다. 대만계 미국인 소설가 에즈메이 웨이준 왕의 삶을 혼든 생생한 고통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저자는 조현병에 관해 당사자만이 들려줄 수 있는 내밀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전한다. 단순히 질병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발적 치료 논쟁, 조현병과 범죄 사건, 정신질환을 겪는 학생을 위한 대학 시스템 부재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경험에 근거해 녹여 낸다. 저자는 예일대에 입학했으나

정신질환을 이유로 퇴학을 당한 경험이 있다. 이후 스탠퍼드대를 졸업하고 2016년 '천국의 국경'으로 소설가로 데뷔했다. 저자가 2019년 펴낸 이 책은 미국 '타임' 등 주요 매체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다.

출판사는 "이 책은 그동안 슬하게 배제되고 소외된 정신질환자의 목소리를 크고 또렷하게 들려줌으로써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 준다"며 "내면의 고통이나 삶의 장애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라면, 정신질환에 맞서는 저자의 단단하고 의연한 태도를 목격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고 포용하는 법을 체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한다.

저자는 책에서 정신질환으로 아스라진 일상을 열세 조각으로 깨고 엮는다. 첫 조각 '진단'에선 양극성정



애를 진단받고 8년 만에 조현병 증상이라는 새로운 진단을 받기까지의 여정을 담았고, '예일대는 널 구해 주지 않아'에선 현재 정신질환을 겪는 학생들이 궁지에 몰린 현실을 직면하고 고민하게 만든다. '아이를 갖는다는 것'에선 정신질환자로서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것에 대한 서글픈 고뇌를, '병동에서'에선 병에 따라 계급이 결정되는 정신병동의 현실을 다룬다. 이유진 옮김. 1만7500원.

오른지기자 ejoh@ihalla.com

"조선 시대 여성들의 특별한 삶"

임치균·강문종·임현아·이후남의 '조선의 걸 크러시'

한국학 연구자들이 실제 역사와 고전소설에서 발굴한 조선 여성들에 관한 오해를 깨부수는 40가지 이야기가 엮였다. 원수를 직접 처단하고, 뛰어난 기개와 재주로 영웅의 반열에 오르며, 적극적으로 사랑을 쟁취한 여성들의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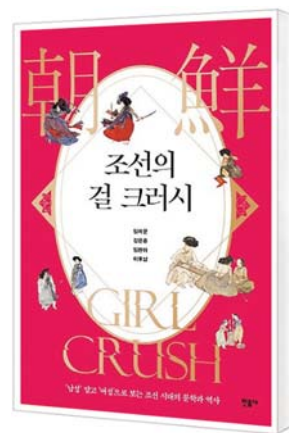
저자들은 '조선의 걸 크러시'를 펴내며 "이 책의 이야기들은 조선 시대 여성들의 특별한 삶이고 서사"라고 했다. "억압적인 세계와 충돌하고 파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며 주체적으로 자아를 실현하는 조선의 센 언니들"이라며 책 제목을 '조선의 걸 크러시'로 잡은 이유를 설명했다.

책은 크게 5부로 구성됐다. 복수를 실천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뒀은 1부 '복수자들'을 시작으로 '영웅의 기상' '쓰고 노래하다' '사랑을 찾아서' '뛰어난 기개와 재주'를 통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의 여성들을 조명한다.

특히 9년간의 소송으로 남편의 이혼 청구에 저항한 이야기를 통해 가부장제의 민낯을, 여성들의 사적 복수를 의롭다고 칭찬한 영조와 정조에게서는 법보다 효를 중시한 위정자의 자세를 포착하는 등 조선 시대의 사회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보여 준다.

저자들은 "이 책은 조선 시대 여성의 삶과 캐릭터에 관심 있는 독자, 요조숙녀와 현모양처로만 조선의 여성들을 기억하는 독자, 제도권 교육 현장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 대중문화



콘텐츠 제작 현장 종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조선 시대 여성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독자들이 고전 산문에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치균·강문종·임현아·이후남 지음. 민음사 펴냄. 1만9000원. 오른지기자

오승철 시조집 '다 떠난 바다에 경례'

오승철 시조시인의 새 시조집 '다 떠난 바다에 경례'가 최근 황금알 시인선(264)으로 출간됐다.

시조집은 크게 5부로 구성됐다. 표제작인 '다 떠난 바다에 경례'를 비롯 '서귀포 침십리' '사천년 해녀물길 끝나는 바다에서' 등 50편이 엮였다.

시인은 "고구려 시대에도 해녀들이 존재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제 대물리며 사천 년간 섬을 지켜온 그들이 퇴장하고 있다"며 "저 텅 빈 바다에 무엇을 바칠까 하다가 그냥 거수경례나 하고 돌아간다"고 '시인의 말'에 남겼다.

강영은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는 창조적으로 형상화된 그의 미학이 정점에 다다른 듯 여겨진다"며 "문학의 본령에 끝없이 천착해온 그의 미학을 '눈물 창창'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1만5000원.



장한라 시집 '철원이, 그 시정마'

장한라 시인이 최근 펴낸 시집 '철원이, 그 시정마'엔 말(馬)에 대한 시가 여러 편 등장한다. 김필영 문학평론가는 해설에서 "특별한 삶의 사정을 가진 말들이"라며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 인간사회의 아픈 단면이 조명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시집엔 표제작인 '철원이, 그 시정마'를 비롯 '말들의 휴가' '퇴역 경주마 갈바람' '말뭉어꾼' '영호남 사둔지간' '고내 삼촌' 등 53편이 크게 3부로 나뉘어 묶였다.

상상인 시인선(28)으로 엮인 이 시집은 지난해 말 제주문화예술회관의 후원을 받아 출간됐으며 최근 초판 3쇄 발행됐다. 1만원.



양은순 두 번째 시집 '서귀포 미인'

양은순 시인의 시집 '서귀포 미인'이 최근 국보시선(322)으로 출간됐다. 시집 '해당화는 이렇게 피어난다'에 이은 두 번째 작품집이다. 크게 5부로 구성된 작품집엔 표제작인 '서귀포 미인'을 비롯 총 60편의 시가 4부에 나뉘 실렸다. 마지막 5부는 8편의 수필로 채웠다.

김진 문학평론가는 서평에서 "시는 시인의 마음을 그리는 작업이다. 양은순의 작품에는 싱싱한 은갈치처럼 퍼덕이는 정서가 강물처럼 흐른다"며 "섬세하고 유려한 시어들이 잔잔한 호수에 떠오르는 풍경화처럼 선명하게 떠오른다"고 평했다. 1만3000원. 오른지기자



당 축 선

CONGRATULATIONS

제주시농협조합장 애월농협조합장



고봉주

제주시농협 조합장 및 애월농협 조합장 연임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농업·농촌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공헌하리라 기대하면서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김병수

제주시 제7기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 김태규 외 회원 일동

당 축 선

CONGRATULATIONS

제16대 제주시농협조합장



고봉주

제16대 제주시농협조합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연사모

회장 오수길 외 회원 일동

취 축 득

CONGRATULATIONS

공학박사 (KAIST 생명화학공학과)



현경림
(父: 현보식 · 母: 김옥자)

공학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촌형제 일동